

## 소면적 다수확 가능한 콩 삼목 재배기술

홍기홍<sup>1\*</sup>, 장지선<sup>1</sup>, 강영식<sup>1</sup>, 최재연<sup>1</sup>, 이순계<sup>1</sup>, 이광원<sup>1</sup>

<sup>1</sup>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서론]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콩의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산 콩의 소비자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은 수도권 귀농인구가 최근 4년 연속 전국 1위로 소규모 면적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텃밭 농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직파재배의 파종시기 일실과 조류피해에 의한 수량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수량을 얻기 위해 육묘 후 이식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콩 파종 후 육묘기간 동안 상배축, 하배축을 절단 삼목하여 이식함으로써 소 면적에서 다수확을 얻을 수 있는 영농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이 시험은 2014년부터 2년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품종은 우람콩과 대원콩으로 6월 1일 비닐하우스 육묘상에 파종하여 10일 후 떡잎 위 본 엽을 적심하고 하배축 뿌리 부분을 잘라 원예용 상토로 충진한 포트에 삼목하여 10일간 육묘 후 시험 포장에 30×70cm 간격으로 6월20일에 이식하고 생육 및 수량성을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삼목재배 시 초장은 무처리에 비해 27.1% 짧아져 태풍등 기상조건에서 도복에 유리하였으며, 잔뿌리가 많이 생성되고 근류근도 3.5배 증가하였다. 삼목 재배 시 초장이 짧아 개화기에 충분한 관수 및 추비(요소 5kg/10a) 살포가 가능하였으며, 수량성은 우람에서 40%, 대원에서 36% 증수 되었다. 삼목 후 새 뿌리와 본 엽이 출현할 때 까지 차광막을 씌워 수분 및 햇빛 등 묘상 관리가 필요하였다.

삼목 재배 시 비용은 육묘 및 이식하는데 노동력이 증가되지만 조류피해 방조망, 본 포장에서 적심노력이 절감되고 특히 파종기간을 20일간 연장하는 효과 등 이익적인 측면이 많아 소규모 텃밭 및 유희하우스 등을 이용 가능한 귀농농가에서 자가소비 장류 콩의 안정적인 수량을 얻기 위한 재배기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저자: Tel. 041-635-6055, E-mail. honggo@korea.kr